

광주시내버스 노선 10년만에 전면 개편

올 연말 6~7곳 거점역과 30분내 연결 직행버스 신설

신도심 접근성, KTX·도시철도 연계 등 용역 착수

광주 시내버스 노선이 2006년 말 준공 영계 시행 이후 1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달 1일 민선 6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하고 본격적인 노선개편에 들어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6면>시는 이번 개편에서 직장인 출퇴근과 학생 등하교 시 수요분석, 도시철도 2호선 연계, 급행 및 직행버스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생활권을 중심으로 6~7곳의 거점역과 30분 이내에 연결될 수 있는 직

행버스 신설이 추진된다.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노선개편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만 해도 연간 400억원에 달한 재정지원 규모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지역 버스의 수송 분담률은 35.6%로 시민 3명당 1명이 버스를 이용하는 셈이다. 1일 이용객은 평균 40만5000여 명이다. 운송수단별 수송분담률은 승용차가 39.

6%로 가장 높고 버스에 이어 택시 14.2%, 지하철 2.8%, 보행·자전거 등 기타 7.8% 순이다. 이번 용역은 브이엔지니어링이 맡았다. 앞서 시 교통건설국장을 팀장으로 대구와 대전시의 버스관련 부서 공무원, 교수, 시민단체 등 11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용역 추진방향, 과업 설정, 대중교통 현안분석 등을 마쳤다. 용역에서는 수완·효천, 첨단지구 등 신도심과의 접근성, 고속철도(KTX)와 도시철도 1.2호선과의 연계, 주요생활권 및 교통 사각지대, 대중교통체계 최적화 방안 등을 도출한다. 광주 대중교통망은 수완, 첨단, 선운지구 등 도심 외곽으로 10여년 새 신형 택지

개발이 집중 이뤄졌지만, 이들 지역이 교통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도시개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용역은 또 시내버스 노선별 수익성 분석, 요금체계, 공차거리 등 준공영제 발전 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시는 2006년부터 버스 재정을 지원하고 운영은 회사가 맡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98개 노선에 998대가 운행중이다. 예비차를 포함하면 모두 1010대다. 운전원 등 임직원은 2700여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용역과정에서 다양한 시민, 전문가 의견을 함께 수렴해 개편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성공개최 적극 홍보

조직위, D-100 앞두고

시루떡 나눔·웹툰 순회전시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오는 5월 5일 박람회 개막 100일을 앞두고 개최 붐 조성을 위해 시루떡 나눔 행사, 웹툰 우수작품 순회 전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직위는 지난 9일 사무실을 개최지인 나주로 옮긴데 이어 26일 나주시청을 찾아 공무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팔시루떡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 또 온라인에서는 오는 2월 15일까지 경품행사를 진행하는 등 박람회 분위기를 고조에 노력하고 있다. 또 ‘웹툰 공모전’ 입상 작품을 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서

순회 전시회도 개최한다. 전시 일정은 오는 29일까지 여주시청, 2월 1~5일 전남도청, 15~19일 광양시청, 22~26일 순천시청 등이며, 추후 광주 버스터미널, 광주 지하철역사, 서울 해화역, 경북 공역 등 수도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모전 대상을 차지한 홍세욱씨의 ‘뜨거워지는 지구를 살리자! 친환경적으로 사는 법’, 이상경씨의 ‘एको패밀리, 친환경을 말하다’ 등이 전시된다. 유영관 조직위 사무국장은 “박람회를 찾아오는 관람객에게 최고의 순간을 선물하고 싶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 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 목포~제주 해저터널 추진위 구성

정부·민간기업 등 관심 유도

토론회 열어 필요성 홍보

기상이변에 따른 폭설로 제주가 고립되면서 목포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재추진에 나선 전남도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론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해저터널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한편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제주도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엔 전남지사는 27일 “서울~제주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일차적으로 중앙정부와 민간기업이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을 건설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정부와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 및 전남도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해 토론회 등을 통해 해저터널의 필요성과 건설 방법 등을 연구하고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지사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민간 전문가와 전남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추진위원회 구성 내용과 활동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가 이처럼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에 적극 나서는 것은 서울~제주 고속철도가 제주공항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한 지역 및 국가경제 부흥, 세계 최장 해저터널이라는 기술적 상징성 등의 당위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지사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방해받을 일이 없다”며 “다만 기상 악화나 자연재해에 따른 비행기 이착륙 지연이나 공항 마비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전남도의 해저터널 추진 의지는 제주도 입장 변화, 서울이나 충청권의 찬성 여부, 중앙정부 및 민간기업의 추진 의지 및 투자 등이 뒤따라야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제주 해저터널은 총 연장 167km(목포~해남 지상 66km·해남~보길도 교량 28km·보길도~제주도 해저터널 73km)로 착공되면 16년이 소요되고, 총사업비는 16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소방공무원 52명 채용

광주시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지방소방공무원 52명을 채용한다. 채용분야는 소방 15명, 구급 30명, 구조 5명, 헬기 조종 2명 등이다. 일반 공개경쟁과 전문성 등 일정 경력을 요하는 경력경쟁으로 구분해 한다. 제1종(대형 또는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분야별 응시 연령은 소방 21~40세, 구급 및 구조 20~40세, 헬기

조종 23~45세다. 필기와 체력, 신체검사를 거쳐 서류 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치러진다. 2월15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으로만 원서를 받는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27일 “체력시험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응시자에 대해 도핑 테스트를 한다”고 밝혔다. 양성반응이 나오면 합격이 취소되고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문의 광주소방안전본부 062-613-8021.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삼성 악수

27일 오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사진 왼쪽)과 서병삼 삼성전자 부사장(생활가전사업부장)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김치냉장고 등 일부 생산라인 베트남 공장 이전과 관련한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방 정가

광주시의회, 롯데마트 불법 재임대 엄정대처 촉구

광주시의회는 27일 롯데마트 불법 전대(轉貸·재임대) 논란과 관련, 현장을 확인하고 시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주경남)는 이날 열린 제246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실 새해 업무 보고에 앞서 롯데쇼핑(주) 광주월드점점을 방문해 불법 재임대 시설 현황과 운영 상황 등을 확인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광주시

관계관, 업체 관계자와 함께 직접 현장을 확인한 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대응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주경남 위원장은 “롯데쇼핑의 불법 재임대는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지역사회에 불이익이 초래된 것이다”면서 “숨방망이 처벌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광주시가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상필 ‘광주교육청 성별 영향평가 조례안’ 상정

광주시의회 문상필(북구 3)의원이 발의한 ‘광주교육청 성별 영향분석 평가 조례안’이 27일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례안에는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 평등 대책을 마련하고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를 정책·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성별 영향분석 평가위원회 구성, 분석평가 책임관 지정, 효율적 시행을 위한 교육, 정보지원체계 구축 등 관

련 내용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라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시교육청의 실질적 성 평등 실현을 돕고 성별 특성을 토대로 한 정책 시행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태환 “청소년 공부방 제역할 못해 재검토를”

광주시의회 문태환(광산 2) 의원은 27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새해업무 보고에서 저소득층 청소년 공부방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저소득층 청소년 공부방 12개소(서구 2, 남구 2, 북구 4, 광산구 4)를 운영할 계획이고, 총사업비는 1억2000만원(개소당 1000만원)이다. 이 사업은 영구 임대아파트, 영세아파트와 같은 저소

득층 밀집지역에 공부방을 만들어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연간 이용자가 절반에 달하는 수가 성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공부방별로 이용자 숫자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도 예산은 일괄 배부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눈매교정술

졸린 눈, 짝 눈, 눈꼬리가 처진 눈, 쌍꺼풀 없이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

비절개 눈매교정술

눈꺼풀을 절개하거나 당기지 않으며, 눈꺼풀 안쪽으로 실을 넣어 눈을 뜨는 근육의 일부를 묶는 방법으로 눈매를 교정합니다. 현미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절개법에 비해 부기가 적고 회복기간이 짧아, 크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 눈 성형은 미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눈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 시술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 세밀하고 전문적인 수술에 익숙한 성형안과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 안과 / 소아안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바우어광주안과

법인회생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